Original Article

J Sasang Constitut Med 2018;30(1):14-23
https://doi.org/10.7730/JSCM.2018.30.1.14

중국 오태인 체질이론의 문헌연구: 체질 특성과 치료, 양생법

최진양† · 곽시라† · 주종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공동 주저자

Abstract

A Literature Study on Five Type Personality (Wutairen) in China: characteristic, treatment and prevention

Zhen-Yang Cui† · Si-Ra Gwak† · Jong-Cheon Joo*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equally contributed

Objectives

Because of growing interest in personalized medicine, constitutional medicine also becomes more important. Constitutional medicine has already developed in many countries. In this study, we tried to investigate five type personality (Wutairen), a kind of Chinese constitutional medicine.

Methods

We did a research on five type personality using CNKI (http://www.cnki.net) up to Jan 15, 2018. Total 204 papers were searched with the keyword "Wutairen". We excluded 170 papers away from the subject or clinically studied. As a result, 34 papers were selected and analyzed.

Results and Conclusions

Five type personality (Wutairen) originated from Huangdi Neijing-Lingshu. There are 5 types: greater Yin person (Taiyin), lesser Yin person (Shaoyin), greater Yang person (Taiyang), lesser Yang person (Shaoyang) and Yin-yang balanced person. These are classified according to Yin-Yang content. Each typ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 treatment and prevention. Five type personality theory considers internal factors more important than external factors. Also, it considers the balance of Yin-Yang important.

Key Words : *Five type personality, Wutairen, Constitutional medicine, Constitution*

Received March 9, 2018 **Revised** March 28, 2018 **Accepted** March 28, 2018

Corresponding author Jong-Cheon Joo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Jeonju Korean Medicine Hospital, 99, Garyeonsan-ro, Deokjin-gu, Jeonju-si, Jeonbuk, 54887, Korea
Tel: +82-63-270-1073, Fax: +82-63-270-1533, E-mail: jcjoo@wku.ac.kr

ⓒ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Ⅰ. 緖論

의학과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라 타고난 유전적 소인이 개인의 건강, 질병의 발생 및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맞춤의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전자를 이용한 맞춤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1-3].

이러한 현대의 맞춤의학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오래 전부터 체질의학이 존재하였다.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 등장한 히포크라테스의 4체액설이 대표적이며, 이후 해부조직학적, 심신의학적, 면역학적 관점 등으로 발전하여 Sheldon의 배엽기원설, Kretshmer의 삼체형, Spranger의 생활영역론, Carl G. Jung의 심리학적 유형론 등으로 구분된다. 동양에서는 체질의학이 더욱 발달하여 인간을 체질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응용하여 왔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의 사상의학, 인도의 아유르베다, 중국의 중의체질학, 일본의 일관당의학 등이 존재한다[4,5].

체질이라는 용어는 중국 명대의 의가 장개빈이 처음으로 기재하였으며, 청대의 의가 섭계 및 제자 화수운이 임증지남의안에서 체질의 개념을 제시하였다[6]. 왕기가 중의체질학설에서 체질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였다[7].

이처럼 중의학에서 체질은 역사적으로 진단과 변증, 치료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체질은 五行 속성, 陰陽의 다소, 체형의 肥瘦 및 심리적, 임상적 특징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현대의 중의체질학에서는 왕기의 아홉가지 체질인 平和質, 氣虛質, 陽虛質, 陰虛質, 瘀血質, 痰濕質, 濕熱質, 氣鬱質, 特禀質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가 표준으로 채택되어 임상에 응용되고 있다[8,9]. 五態人 체질은 황제내경의 음양론에 의거하여 사람의 체질을 太陰之人, 少陰之人, 太陽之人, 少陽之人, 陰陽和平之人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중국 내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임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五態人 체질은 심신, 환경, 품부적 측면에서 한국의 사상체질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 중국과 한국의 체질의학 비교 연구에 있어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10].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오태인 관련 논문을 검색 후 분석 정리하여 보고하게 되었다.

Ⅱ. 對象 및 方法

중국학술정보원의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中國知網(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에서 2018년 1월 15일 현재 五態人, 五態人으로 검색하여 총 204개의 신문기사,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학술대회 논문 등이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중복게재 6개, 신문기사를 비롯한 보도자료 12개, 오태인이 단순 언급됐거나 주제에 맞지 않는 논문 74개, 오태인 임상연구 논문 78개를 제외하고 五態人의 이론에 관하여 기술한 34개의 논문을 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五態人의 기원과 개념, 외형적 특징, 성격과 행동방식, 생리와 병리, 치료와 양생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Figure 1, Tab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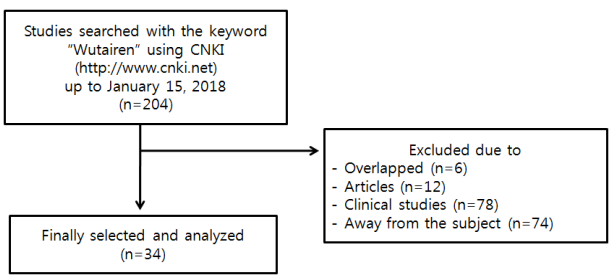

Figure 1. Flow chart of selecting literature.

Table 1. Theoretical studies of five type personality (Wutairen) searched in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Title	Journal or Conference	Year	Type
試論≪黃帝內經≫陰陽人格体質學說	心理科學通訊	1984	Journal
淺論"陰陽平和之人"的臨床意義	中医藥學報	1984	Journal
陰陽五態人性格、体型与若干生理生化參數關系的調查研究	中医研究	1989	Journal
對≪內經≫藏象學說的探討(續)	中医藥研究	1991	Journal
中医气質學說探析	江西中医藥	1999	Journal
≪黃帝內經≫藏象的"四象理論"研究	中國医藥學報	1999	Journal
中医學心理學的个性學說与五態人格測驗	中國中医基础医學雜志	2006	Journal
≪內經≫中的人体審美觀	北京中医	2006	Journal
探≪內經≫"五態"人与治	現代中西医結合雜志	2007	Journal
脉診在軀体性疾病中的診斷作用	中華中医藥學刊	2008	Journal
論中医气質學說的意義及其客觀化診斷途徑	南京中医藥大學學報	2008	Journal
体質的分層、分類診斷初探	中國中医基础医學雜志	2008	Journal
中医个性、体質類型与亞健康	中國中医基础医學雜志	2009	Journal
≪黃帝內經≫中划分的五類性格	新天地	2010	Journal
≪黃帝內經≫体質陰陽分類解析	遼宁中医藥大學學報	2010	Journal
從≪黃帝內經≫体質医學思想談体質對疾病的影響	中華中医藥雜志	2010	Journal
新視角下五態人的心身特征	時珍國医國藥	2010	Journal
≪內經≫中對心身疾病的治療原則	中國中医基础医學雜志	2010	Journal
中医 "五態人" 体質特征分析	中医雜志	2013	Journal
基于≪黃帝內經≫陰陽 "五態人" 之理論淺析 "因質施針"	中華中医藥雜志	2013	Journal
中医人格体質論的內涵探析	中医雜志	2013	Journal
陰陽五態人格概述	河南中医	2013	Journal
中医五態人格的五行配屬關系探討	世界中医藥	2014	Journal
以≪傷寒雜病論≫解讀≪黃帝內經≫陰陽五態体質的若干思考	世界中医藥	2015	Journal
≪黃帝內經≫中个性類型的整理研究	中國中医科學院中國医史文獻研究所	2003	Thesis
中医气質學說及中医气質量表(TCM-QZS)的初步研究	湖南中医學院	2004	Thesis
禀賦概念的現代詮釋及与中風發病相關性研究	中國中医科學院中医臨床基础医學研究所	2008	Thesis
五態人格測驗結构效度分析	山東中医藥大學	2010	Thesis
≪黃帝內經≫五形人与陰陽五態人辨識与調理研究	遼宁中医藥大學	2015	Thesis
体質和未病狀態的分層、分類診斷初探	中医理論臨床應用學術研討會論文集	2007	Conference
中医心理治療的理論与方法	失眠症－－中医心理治療規范化与國際化探索會議文集	2008	Conference
≪內經≫心身養生保健思想探討	第三届中和亞健康論壇暨2009·亞健康產業展覽會論文集	2009	Conference
中医 "五態人" 的体質特征分析	第三届海峽兩岸中医心理學論壇	2013	Conference
中医气質學說与五態人格研究	中國中西医結合學會精神疾病專業委員會第十四届學術年會	2015	Conference

Ⅲ. 結果

1. 五態人의 기원과 개념[11-13]

五態人의 기원은『黃帝內經·靈樞』「通調論篇·通天七十二」에서 비롯되었다. 五라는 숫자는 天人相應의 개념에 입각한 것으로, 天地之間 六合之內 不離于五 人亦應之 非徒一陰一陽而已라 하여 인간을 포함하는 만물이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영추 통천편은 인체의 근본 구성인 음과 양을 척도로 하여 太陰之人, 少陰之人, 太陽之人, 少陽之人, 陰陽和平之人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체질을 구분하였다. 음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각각 多陰而無陽한 太陰之人, 多陰而少陽한 少陰之人, 多陽而少陰(無陰)한 太陽之人, 多陽而少陰한 少陽之人, 陰陽之氣和한 陰陽和平之人으로 구분된다(Table 2).

2. 五態人의 외형적 특징[14]

太陰之人의 외형은 피부색이 검고, 생각에 잠긴 듯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잘 들지 않으며, 골격이 크고 살집이 풍만하다. 허리가 잘 발달되어 있어 오금이 드러나게 되며 허리는 구부정하지 않은 특징을 가진다. 少陰之人의 외형은 흙이 없는 산과 같이 살이 적어 마르고 약해 보인다. 겉으로는 고상해 보이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평소에는 침울해 보이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떠들썩해진다.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고 불안해하며 걸음걸이 역시 어깨를 움츠리고 걷는다. 太陽之人의 외형은 의기양양하여 턱을 치켜세우고, 허리가 뒤로 젖혀지고 무릎을 구부리게 된다. 少陽之人의 외형은 서 있을 때는 머리를 숙이지 않고 몸을 뒤로 젖히고 있으며, 걸을 때는 팔을 많이 흔들며 걷는다. 두 팔과 팔꿈치를 등 뒤쪽으로 내민 듯이 보인다. 陰陽和平之人의 외형은 의젓하고 편안하며, 마음이 유순하게 보이고, 온정과 기쁨이 있으며, 눈매가 부드럽고 아름다워 모든 사람들이 군자라고 부른다(Table 3).

3. 五態人의 성격과 행동 방식[15-18]

太陰之人의 성격은 탐욕이 많고 인자함이 없으나, 겉으로는 겸손하고 정중하게 보인다. 재물을 취하기만 하고 내놓을 줄 모르며, 속마음을 겉으로 내색하

Table 2. Origin and concept of five type personality (Wutairen)

項目	內容
最早記載	『黃帝內經·靈樞』「通調論篇·通天七十二」
數字來源	天地之間 六合之內 不離於五 人亦應之 非徒一陰一陽而已
分類依據	陰陽含量演化而成
體質區分	太陰之人 少陰之人 太陽之人 少陽之人 陰陽和平之人
哲學基礎	『黃帝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雲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Table 3. Appearance of five type personality (Wutairen)

五態人	外貌 表現
太陰之人	其狀黮黮然黑色 念然下意 臨臨然長大 膇然未偻
少陰之人	清然竊然 以陰賊 而躁喉 而似伏
太陽之人	其狀軒軒儲儲 反身折膇
少陽之人	其狀立則好仰 行則好搖 其兩臂兩肘則常出于背
陰陽和平之人	其狀委委然 隨隨然 顒顒然 愉愉然 暖暖然 豆豆然 衆人皆曰君子

지 않는다. 게으르고 행동이 느리다. 少陰之人의 성격은 사소한 일에 욕심을 부리며 남을 해코지하기를 좋아한다. 타인의 손실을 보면 자신이 이득을 얻는 듯 좋아하며, 타인의 번성을 보면 배아파하고 성을 낸다. 질투심이 많고 은혜에 보답할 줄을 모른다. 太陽之人의 성격은 언제나 의기양양하고, 호언장담을 잘한다. 희망이 크고 행동이 과감하며 능력 밖의 것을 주장한다. 대사를 치르는데도 예사롭고 독선적이며,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少陽之人의 성격은 치밀하고 신중하여 따지기를 좋아한다. 오만하고 하찮은 관직에 있어도 뽐내기를 좋아하며, 사교성이 좋아 집 밖으로 나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 陰陽和平之人의 성격은 안정적이며 함부로 두려워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여 때에 맞게 행동한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겸손하고 이치에 맞게 남을 다스릴 줄 안다(Table 4).

4. 五態人의 생리와 병리[19-21]

五態人은 체질에 따른 음양의 다소로 인해 서로 다른 생리, 병리적 특징을 가지게 된다. 太陰之人은 多陰而無陽하여 營血이 탁하고 무거우며, 衛氣가 둔하고 澁하여 음양이 조화롭지 못하다. 또한 근이 이완되고 피부가 비후된다. 중의질병예측학에 의하면 太陰之人은 비위 질환, 濕으로 인한 질환에 이환되기가 쉬우며 임상적으로 濕痺, 부종, 설사 등이 잘 나타난다. 왕련 등은 논문에서 太陰之人이 氣虛와 瘀血 류의 질병 경향을 가진다고 하였다. 少陰之人은 多陰而少陽하여 위는 작은데 장이 크고, 陽明經의 脈氣가 작은데 비해 太陽經의 脈氣는 커서 六腑가 조화롭지 못하다. 중의질병예측학에 의하면 少陰之人은 陽虛로 인한 질환에 이환되기가 쉽고 임상적으로 浮腫, 關格 등이 잘 나타난다. 왕련 등은 논문에

Table 4. Character and behavior of five type personality (Wutairen)

五態人	「通天篇」	韓靜	楊秋莉 等	李黎 等
太陰之人	貪而不仁 下齊湛湛好納而惡出 心和而不發 不務于時 動而后之引此太陰之人也	喜靜 表裡不一 思慮多 悲觀失望 膽小自私 優柔寡斷 與人保持一定距離 相機而動	外貌謙虛 內怀疑慮 考慮多 悲觀失望 胆小 陰柔寡斷 与人保持一定距离 內省孤獨 不愿接触人 不喜歡興奮的事、不合時尚 保守自私 先看他人之成敗而定自己的動向 不肯帶頭行事等	悲觀 內心孤獨 不願與人接觸 自私 做事畏縮 優柔寡斷 不善於控制情緒 不善於處理人際關係 警覺性低
少陰之人	小貪而賊心 見人有亡 常若有得 好傷好害 見人有榮 乃反慍怒 心疾而无恩 此少陰之人也	冷漠安靜 韜光養晦 明辨是非 警覺性高 善嫉 軟弱 心思細膩 深謀遠慮 能力持久 自製隱忍	冷淡沉靜 心有深思而不外露 善辨是非 能自制 警惕性高 有嫉妒心 柔弱 做事有計划 不亂說 不輕舉妄動 謹慎 細心 穩健 有持久能力 耐受性好等	冷靜 善辨是非 擁有良好的人際關係 能合理調節情緒 心思重 壓力大 易疲勞
太陽之人	居處于于 好言大事 无能而虛說 志發手四野 舉措不顧是非 爲事如常自用 事雖敗 而常无悔 此太陽之人也	傲慢自用 行事冲動 有野心 積极進取 暴躁易怒 剛毅勇敢 不惧挫折 遇事堅持自己的觀点 甚至不顧是非	傲慢 自用 主觀 冲動 有野心 有魄力 任性而不顧是非 暴躁易怒 不怕打擊 剛毅勇敢 激昂 有進取心 敢堅持自己觀点 敢頂撞等	關注自己 善於規避危險 注意膳食結構的平衡 有進取心 不怕打擊 敢堅持自己的觀點 夠保持愉快的心情 飲食作息無規律 易疲勞
少陽之人	謷諦好自貴 有小小官 則高自宣 好爲外交 而不內附 此少陽之人也	喜動 思維敏捷 性格開朗活潑 人際關系良好 善變 遇事漠不關心不易堅持到底	好社交 善交際 開朗 敏捷樂觀 輕浮易變 机智 動作多 隨和 漫不經心 喜歡談笑 不愿靜而愿動 朋友多 喜文娛活動 做事不易堅持等	人際關係良好 善於控制自己的情緒 開朗 且生活無規律
陰陽和平之人	居處安靜 无爲惧惧 无爲欣欣 婉然從物 或与不爭 与時變化 尊則謙謙 譚而不治 是謂至治	沉着有涵養 謙和謹慎 公正 遇事積极 不斤斤計較 不自鳴得意	態度從容 尊嚴而又謙謹 有品而不亂 不劇有喜怒 喜怒不形于色 居處安靜 不受物惑 无私无畏 不患得患失 不沾沾自喜 忘乎所以 能順應事物發展規律等 是一种有高度平衡能力的性格	善于掌控事物 沉着而有涵養 感情不外露 不受物感 能适應事物發展規律 能合理控制飲食結构 規避外來風險 有效調節情緒 從而保持心態平衡

서 少陰之人이 六腑失調와 陽虛陰盛 류의 질병 경향을 가진다고 하였다. 太陽之人은 多陽而少陰(無陰)하며, 중의질병예측학에 의하면 熱이나 陰虛陽亢으로 인한 질환에 이환되기 쉽다. 왕련 등은 논문에서 太陽之人이 陽氣異常에 의한 癲狂, 中風, 暴脫, 昏厥 등의 질병 경향을 가진다고 하였다. 少陽之人은 多陽而少陰하여 經脈은 작은데 絡脈은 큰 특징을 가진다. 중의질병예측학에 의하면 少陽之人은 陽氣亢盛 혹은 肝風內動으로 인한 질환에 이환되기 쉽고, 왕련 등의 논문에서는 陰虛內熱, 陰虛陽亢 류의 질병 경향을 가진다고 하였다. 陰陽和平之人은 陰陽之氣和하여 대체로 음양의 기와 혈맥이 조화로운 생리적 특징을 가진다. 중의질병예측학에서는 陰陽和平之人이 폐 질환과 燥熱로 인한 질환에 이환되기 쉽다고 하였으며, 왕련 등의 논문에서는 陰陽和平之人의 질병 경향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다(Table 5).

5. 五態人의 치료와 양생[21-23]

五態人은 각 체질별 생리, 병리적 특징에 따라 치료 원칙과 방법이 결정되며, 양생의 방법 또한 체질별로 다르다. 太陰之人에서는 비교적 강한 瀉法을 써서 음양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 강한 瀉法을 쓰지 않으면 陰邪의 凝滯를 제거할 수 없다. 따라서 비교적 강한 瀉法, 活血化瘀, 化痰利濕, 通利二便 등의 치료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太陰之人은 양생을 위해 타인과 많이 교류해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친구나 지인에게 털어놓는 것이 좋다. 담배를 끊어야 하고, 술은 적당히 마셔야 한다. 少陰之人에서는 六腑의 부조화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나, 함부로 자침하면 더욱 상태가 어긋나거나 기혈이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음양의 변화를 신중히 관찰하여 陰血外脫과 陽氣耗損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양생을 위하여 감정을 적절히 발산하고 사려가 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太陽之人에서는 반드시 본래 적은 陰血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陽만을 瀉해야 한다. 그러나 양기가 아무리 많더라도 거듭 사하면 양기가 허탈하게 되어 狂症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음양이 모두 허탈해지면 急死하거나 人事不省이 될 수 있다. 양생을 위해서는 감정을 잘 조절하여 화와 충동적 행동을 줄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少陽之人에서는 陰經을 보하여 혈을 실하게 하고, 陽絡을 사하여 기를 허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陽絡을 과도하게 사하면 氣가 모두 허탈되고 中氣가 부족해져 병이 낫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양생을 위해 사교와 모임을 적당히 하고, 음식 조절과 수면 보장에도 주의해야 한다. 陰陽和平之人은 대체로 음양의 기와 혈맥이 조화로우나 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맥과 용모를 더욱 상세히 살펴 邪氣와 精氣의 성쇠, 血氣의 유여와 부족을 판단해야 한다. 盛한 경맥은 瀉하고 虛한 경맥은 補해야 하며, 맥의 虛實이 없을 때에는 증상이 있는 경맥을 취하여 조화시켜야 한다(Table 6).

Table 5. Physiology and pathology of five type personality (Wutairen)

五態人	「通天篇」	『中医疾病預測學』	王練 等
太陰之人	太陰之人 多陰而無陽 其陰血濁 其衛氣澀 陰陽不和 緩筋而厚皮	易患脾病 濕病 脾屬土 易傷脾 濕痹 水腫 泄瀉等病	氣虛血瘀類病變
少陰之人	少陰之人 多陰而少陽 小胃而大腸 六腑不調 其陽明脈小 而太陽脈大	易患陽虛之證 水腫 關格等	六腑失調 陽虛陰勝的病變
太陽之人	太陽之人 多陽而少陰 …… 陽重脫者易狂 陰陽皆脫 暴死不知人也	患熱病及陰虛陽亢之證	陽氣異常的癲狂 中風 暴脫 昏厥等病變
少陽之人	少陽之人 多陽而少陰 經小而絡大 血在中而氣在外 實陰而陽虛 ……	陽氣亢盛 患肝風內動	陰虛內熱 陰虛陽亢類病變
陰陽和平之人	陰陽之氣和 血脈調 宜謹診其陰陽,視其邪正 安其容 …… 此所以調陰陽 別五態之人者也	易患肺系疾病及燥熱之證	

Table 6. Treatment and prevention of five type personality (Wutairen)

五態人	「通天篇」	王練 等	李黎 等
太陰之人	不亡疾瀉 不能移之	不用快速瀉法 就不能清除凝滯的陰邪 多考慮使用較重的瀉法 活血化瘀 化痰利濕 通利二便等	宜加强與人交流 有壓力後向親友傾述 注意戒煙限酒
少陰之人	必審而調之	審愼地注意陰陽變化 避免陰血外脫與陽氣耗散的發生	宜適當宣洩感情 避免思慮過多
太陽之人	必謹調之 無脫其陰 而瀉其陽	謹愼調理 不要損傷陰血 以疏導出陽氣爲主 但不可瀉除太過 以防陽氣外脫	宜調節情緒 減少發怒次數 少衝動行爲 多理性思考
少陽之人	獨瀉其絡脈則强	一面補其陰血 一面瀉其陽氣 但不要獨瀉絡脈的陽氣 避免陽氣散越 陰血虛弱 疾病纏綿難愈	宜控制應酬次數 特別注意飮食搭配 保證睡眠
陰陽和平之人	審有餘不足 盛則瀉之 虛則補之 不盛不虛 以經取之	順其自然 形神兼養的養生保健爲主 在有病治療時 應仔細辨別陰陽變化 詳審有餘不足 以平爲期	

IV. 考察

五態人은『黃帝內經·靈樞』「通天篇」에서 기원하였으며, 음양의 다소에 따라 多陰而無陽한 太陰之人, 多陰而少陽한 少陰之人, 多陽而少陰(無陰)한 太陽之人, 多陽而少陰한 少陽之人, 陰陽之氣和한 陰陽和平之人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五態人의 체질 분류는 有諸內 必形諸於外 視其外應 以知其內臟이라 한 중의기초이론에 따른 것이다[24]. 서로 다른 체질에서의 陰陽 稟賦의 차이가 외부로 표현되는 개체의 특징을 만들어내며 외부로 표현된 특징을 근거로 내재된 음양다소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사상의학에서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소양인 체질은 臟腑의 大小와 性情의 偏急에 의하여 구분된다. 음양 다소에 의한 단계적 체질 구분은 사상체질과 구분되는 五態人 체질의 특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의 체질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아유르베다는 인간은 소우주로서 대우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세 가지의 생물학적인 기질인 트리도샤(Tridosha)의 조합에 따라 일곱 가지의 체질로 구분된다고 하였다[25]. 일본의 체질의학인 일관당의학은 인간을 쉽게 걸리는 질병에 따라 瘀血證 체질, 臟毒證 체질, 解毒證 체질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26].

「通天篇」과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五態人의 외형, 성격 및 행동방식은 각 체질별로 특징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太陰之人은 피부가 검고 골격이 크고 살집이 풍부하다. 고개는 아래로 숙이고 있으며, 허리가 발달되어 오금이 드러나지만 허리는 구부정하지 않게 보인다. 少陰之人은 살집이 적고 약해 보이는 외형적 특징을 지닌다. 고상하면서도 어딘가 석연치 않으며, 침울하다가도 갑자기 떠들썩해지기도 한다.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고 불안해하며, 걸을 때에는 어깨를 움츠리고 걷는다. 太陽之人의 외형은 턱을 치켜세우고, 허리가 뒤로 젖혀지고 무릎을 구부리게 된다. 少陽之人은 외형은 서 있을 때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몸을 뒤로 젖히고 있으며 팔은 등 뒤쪽으로 내민 것처럼 보인다. 걸을 때에는 팔을 많이 흔들며 걷는다. 陰陽和平之人의 외형은 의젓하고 편안하며, 마음이 유순하고 즐거워 보이며, 눈매가 부드럽고 아름답다.

五態人의 성격과 행동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太陰之人은 탐욕스럽고 인자함이 없고,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게으르고 행동이 느리다. 少陰之人은 사소한 일에 욕심을 부리고 남을 해코지하기를 좋아한다. 질투가 많아 타인의 불행에 기뻐하며, 타인의 행복에 배아파하고 성을 낸다. 太陽之人은 언제나 의기양양하고 과감하고, 호언장담이나 능력 밖의 것을 주장하기를 잘한다. 대사를 치르는데도 예사롭고, 독선적이며,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少陽之人은 치밀하고 신중하여 따지기를 좋아하고, 오만하고 뽐내기를 좋아하며, 사교성이 좋다. 陰陽和平

之人은 안정적이어서 함부로 두려워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겸손하며, 때에 맞게 행동할 줄 안다. 五態人의 외형적 특징에 대해서는 「通天篇」의 내용 외에 기타 논문에서의 추가적인 기술을 찾지 못하였다. 상대적으로 외형적 측면보다는 성격과 행동방식의 측면에서 그 특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五態人 체질의 특징이자 사상의학과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五態人은 생리와 병리에 있어서도 체질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며, 이에 따라 치료원칙과 방법이 결정된다. 太陰之人은 營血이 탁하고 무겁고, 衛氣가 둔하고 澁하여 음양이 조화롭지 못하다. 따라서 濕으로 인한 질환이나 비위 질환에 이환되기가 쉽고, 濕痺, 부종, 설사 등의 증상이 잘 나타난다. 치료에는 비교적 강한 瀉法, 活血化瘀, 化痰利濕, 通利二便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少陰之人은 위는 작은데 장이 크고, 陽明經의 脈氣는 작은데 太陽經의 脈氣가 커서 六腑가 조화롭지 못하다. 陽虛로 인한 질환에 이환되기 쉬우며 浮腫, 關格 등의 증상이 잘 나타난다. 치료 시에는 음양의 변화를 신중히 관찰해야하며, 함부로 자침하여 陰血外脫과 陽氣耗損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太陽之人은 양이 많고 음이 적어 열이나 陰虛陽亢에 의한 질환에 이환되기가 쉽고, 癲狂, 中風, 暴脫, 昏厥 등이 잘 나타난다. 치료 시에는 본래 적은 陰血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히 陽만을 瀉해야 하며, 陽氣 또한 거듭 瀉하면 허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少陽之人은 양이 많고 음이 적으며, 經脈은 작은데 絡脈은 크다. 따라서 陽氣亢盛 또는 肝風內動으로 인한 질환에 이환되기 쉽다. 치료 시에는 陰血을 補하고 陽氣를 瀉해야하나, 陽絡을 과도하게 瀉하여 氣가 허탈되거나 中氣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陰陽和平之人은 대체로 음양과 기혈이 조화로우나 병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상세히 살펴 盛한 경맥은 瀉하고 虛한 경맥은 補해야 한다. 폐 질환과 燥熱로 인한 질환에 이환되기가 쉽다.

문헌을 통해 살펴본 五態人의 질병은 감염이나 외상 등에 의한 질병보다는 선천 품부적 요인, 심리 정신적 요인, 음양의 부조화 등에 의한 질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병리에 있어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을 중시한다. 또한 체질별 陰陽多少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병리적 상황과 그에 따른 치료방법을 제시하여 인체 내 음양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료가 과도할 시에 그로 인한 음양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Ⅴ. 結論

중국학술정보원의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中國知網(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에서 2018년 1월 15일 현재 五態人, 五態人으로 검색한 논문을 五態人 체질의 기원과 개념, 외형적 특징, 성격과 행동방식, 생리와 병리, 치료와 양생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五態人은『黃帝內經·靈樞』「通天篇」에서 기원하였으며, 음양 다소에 따라 太陰之人, 少陰之人, 太陽之人, 少陽之人, 陰陽和平之人의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2. 五態人은 외형, 성격 및 행동방식에 있어 각 체질별로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외형적 측면보다는 성격과 행동방식의 측면에서 그 특징이 자세히 기술되었다.
3. 五態人은 생리와 병리에 있어서도 체질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며, 이에 따라 치료원칙과 방법이 결정된다.
4. 五態人은 병리에 있어 외부적 요인보다는 선천 품부 요인, 심리 정신적 요인, 체내의 음양 부조화 등의 내부적 요인을 중시한다.
5. 五態人은 생리와 병리, 치료에 있어 체내 음양의 균형을 중시한다.

五態人 체질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체질마다 서로 다른 외형, 성격, 행동방식, 생리와 병리를 가지며 다른 치료원칙과 방법이 적용되므로 진단법 개발, 치료 계획 수립, 양생 지도 등에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내부적 요인과 음양의 균형을 중시하는 五態人 체질의 이론적 특징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VI. Acknowlegement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VII. References

1. Gabriel S. Variation in the Human Genome and the Inherited Basis of Common Disease. Seminar in Oncology. 2006;33(11):46-49.
2. Topol EJ. Individualized medicine from prewomb to tomb. Cell. 2004;157:241-253.
3. Taylor JG, Choi EH, Foster CB, Chanock SJ. Using Genetic Variation to Study Human Disease. Trend in Molecular Medicine. 2001;7(11):507-512.
4. Kang KR, Hwang SM, Park SJ, Chae H. A Comparative Study on Traditional Constitutional Medicine in the World. Korea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2009; 15(3):35-43.
5. Kho JH. The Comparative Study of Constitution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Master's thesis. Iksan: Wonkwang University; 2010.
6. Bao Hai-yan. A study on constitution theory of Seopcheonsa. Guiding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Pharmacy. 2011;17(1):34-36.
7. Wang Qi, Sheng Zeng-xiu. TCM Constitution theory. Nanjing: Jiangsu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82. 15.
8. Wang Qi, Li yingshuai, Ma xiaofeng. A comparative study on Constitutional medicines in China and Korea.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7;20(2): 98-103.
9. Cui Zai-he.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CM constitution theory an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Beijing: Bei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2010. 48-55.
10. Han Xue-hua, Jin Xiang-shu.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sang constitution theory and TCM constitution theory. Chinese Journal of national medicine. 2008;4(4):9-10.
11. Wang Hong-tu. Huangdi Neijing Lingshu.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04. 413-414.
12. Wang Bingzhuan. Huangdi Neijing Lingshu Jing. Shanghai: 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2000. 4430.
13. Wang Qing-qi. Lingshu Jing.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00. 11-12.
14. Chen Zhong-ren, Chen Bai-nan, Chen Ya-ping. Literal Translation of Miraculous Pivot. Beijing: Ancient Books of TCM Press; 2001. 316-317.
15. Han Jing. An overview of the five state personality of Yin and Yang. Hena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33(1):44-45.
16. Yang Qiu-li, Xue Chong-cheng. The Personality Theory of Medicopsychology of TCM and the Five-Pattern Personality Inventory. Chinese Journal of Basic Medicine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6;2(10):777-779.
17. Yang Qiu-li, Xu Rui, Yu Yin, Xue Chong-che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ve state personality, the physique type and the TCM syndrome type of depression.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0;51(7):655-657.
18. Li Li, Du Jian, Zhang Jie, Xu Rui, Kong Jun-hui.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ive state personality and lifestyle.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eine. 2010;1(Supplement):166-167.

19. Yang Qiu-li, Xu Rui, Yu Yin, Liu Wan-ting, Xue Chong-cheng. Personality, type of constitution and subhealth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hinese Journal of Basic Medicine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9;15(5):383-384.
20. Wang Xin-lu, Tian Si-seng, Zhou Yong-hong. Disease predic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Beijing: China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2002. 79-85.
21. Wang Lian, Ju Bao-zhao.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the constitution Yin and Yang in the Huangdi Neijing. Journal of Liaoni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0;12(10):78-79.
22. Yang Qiu-li, Yu Yin, Xue Chong-cheng. The principle of treatment of psychosomatic diseases in the Internal Classics. Chinese Journal of basic medicin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0;16(1):20-21.
23. Yao Yu-fang.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Neijing》 "treating the five states as the treatment". Chinese Acupuncture & Moxibustion. 2007;7(8):629.
24. Sun Guang-ren. Basic theor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Beijing: Chinese Medicine Publishing House; 2002. 3.
25. Ryu SH. A Study on the Ayurvedic Constitut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informatics. 2006;12(1):73-84.
26. Joh KH, Park SS, Katsutoshi Terasawa, Yutaka Shimada, Lee WC. A Study of the "Ikkando Medicine" in Japanese Oriental Medicin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997;9(1):339-352.